

20

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방안

- ☑ (추진배경) 현 정부는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통한 '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'를 열겠다는 국정 목표 아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~2027)을 발표하였으나
- 최근 사회적기업의 지원방식 전환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기술 기반 창업지원이 다수인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에 어려움 발생 예상

- ☑ (추진목적) 본 리포트의 목적은 지역별 사회적기업 특화분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,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

☑ (주요내용)

- 지방 중소도시 또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이 무엇보다 중요
- 또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·안정적인 육성 환경조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한 창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
 - (창업준비단계) 리빙랩 등 다양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연계한 사회적기업의 창업화 지원
 - (예비창업단계)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되,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, 사회적가치 측정 및 증진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만의 강점 강화
 - (창업초기단계)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지원,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역단위 정책 연계를 통한 초기 창업 및 사업화 지원
 - (창업도약단계) 사회적가치 측정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민간투자 발굴, 동종·이종 업종 간 교류 촉진 지원 등

CONTENTS

1	<p>추진개요 3</p>
2	<p>지역별 사회적기업 특화분석 5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 지역별 사회적기업 특화분석 5 나 시사점 11
3	<p>성장단계별 창업지원방안 12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 개요 12 나 성장단계별 창업지원방안 13
4	<p>종합 17</p>

1

추진개요

지역별 사회적기업 특화분석과 함께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

☑ **(추진배경)** 현 정부는 **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**(’22.4.27.)를 통해 **‘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’**를 열겠다는 국정 목표 아래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

- 이를 실현하기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, 로컬 인프라-로컬 창조생태계 구축 등 **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**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제시*

*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, 경우에 따라 로컬크리에이터 범주 안에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음. 하지만 로컬창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수는 있지만 시작점이 생계를 위한 영업활동이라는 점에서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는 차이 존재¹⁾

☑ 한편,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병행하던 **사회적기업의 지원방식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면적 전환**

- 이에 따라 인건비, 사회보험료, 사업개발비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(예: 중기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)

☑ 수도권 중심의 기술 기반 창업지원이 다수인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* ** **지방 중소도시의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*****

*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(Startup Genome)은 매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(Global Startup Ecosystem Reprot 2022)를 발간하며 전 세계 100개국 2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창업환경을 평가하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다양한 도시가 선정된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타 도시는 미선정

** 국토연구원(2022) 보고서에 따르면, 창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정책의 세부 사업을 살펴본 결과 2022년 기준 창업지원예산의 약 98%가 기술창업에 집중

*** (예비)사회적기업은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각 권역별 200개 내외의 창업팀을 육성하며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의 기초를 마련해왔으나, 해당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 필요

1) 국토연구원(2022). 지방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연구.

☑ 한편,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정책에서 시작한 정책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주요성과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다른 부분의 성과는 그동안 간과되어왔음

☑ 그러나 기존 사회적기업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기술된 바와 같이, **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문제해결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*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****

* 간기현 외(2023)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지역사회의 고용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영향을 미치며,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경제성장 및 지역의 고용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혀냄

** 최유진(2018)은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수록(사회적기업의 설립이 증가할수록)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혀냄

- 유형이 다양하고 지역 기반의 소규모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나 **높은 생존율과 사회적 목적 추구로 지역의 변화에 기여하는 효과** 달성 가능

☑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들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업하면서 창업생태계 역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, 그리고 일반 스타트업이 창업 후 성장단계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과 다르게, **사회적기업의 창업 기반이 지역의 유·무형 자산 또는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변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밖에 없음**

- 즉, **사회적기업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 주체로 성장 가능성 존재**

☑ 따라서 **다양한 간접 지원방식을 통한 지방 중소도시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육성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**

☑ **(추진목적)** 본 리포트의 목적은 **지역별 사회적기업 특화분석과 함께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**

☑ **(기대효과)**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 목표 아래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사회적기업 등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**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겠다**고 밝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

2

지역별 사회적기업 특화분석

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맞춤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이 효과적

가. 지역별 사회적기업 특화분석

☑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리포트의 목적은 지방 중소도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

☑ 따라서 본 리포트는 ①지방 중소도시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보이며, ②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구별되는 지방 중소도시 내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분포와 업종별 현황 파악

- 분석단위 지역은 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), 지방 대도시(지방 광역시, 제주 및 세종 포함, 지방 비수도권 소재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), 지방 중소도시(비수도권 소재 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)로 구분
- 업종 분류는 일차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코드를 준용

☑ 또한 지역별 사회적기업 분포 및 업종별 현황을 파악한 후 ③입지상 분석을 통해 입지상 계수를 도출 즉, LQ(Location quotient)를 통해 지역별 사회적기업 특화 정도를 확인* ** ***

* 입지상 분석은 전국 산업구조와 비교하여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가 갖는 상대적 집중도 또는 특화 정도를 파악하는 분석기법으로 어떤 지역에서 특정 산업의 입지상 계수가 1보다 큰 수로 도출되면 해당 산업은 지역 내 특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

** 예를 들면, 단순히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만 보는 것이 아니라 LQ를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사회적기업 특화 정도에 비추어 지역의 특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의 의존성을 분석할 수 있음

*** 해당 리포트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여 지역별 사회적경제 특화 정도와 함께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특화 업종을 확인하고자 함

☑ 사회적기업의 분포는 <그림 01>과 같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(41.2%), 사회적기업의 수는 <표 01>과 같이 수도권, 지방 대도시, 지방 중소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표 01>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비중 추이(2017~2021)

(단위: %)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도권	736(40%)	850(41%)	994(42%)	1,153(42%)	1,264(41%)
지방 대도시	560(31%)	623(30%)	513(22%)	819(30%)	916(30%)
지방 중소도시	529(29%)	589(29%)	845(36%)	766(28%)	883(29%)
계	1,825(100%)	2,062(100%)	2,352(100%)	2,738(100%)	3,063(100%)

☑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 <표 02>와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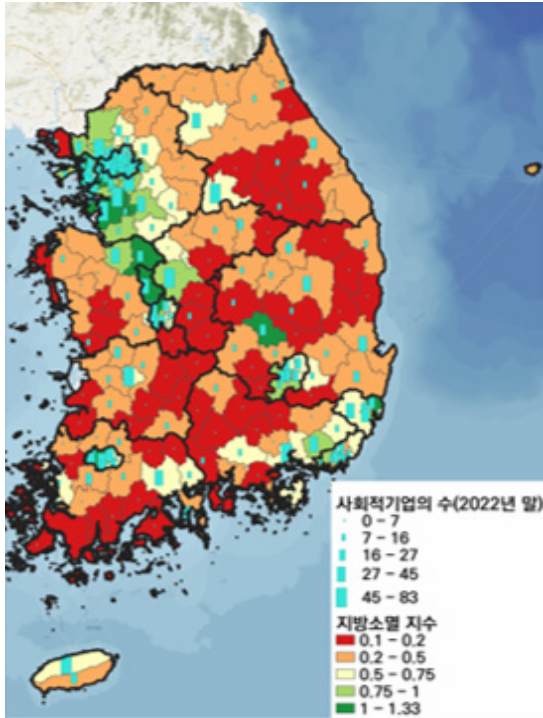
<표 02>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(2021년)

(단위: 개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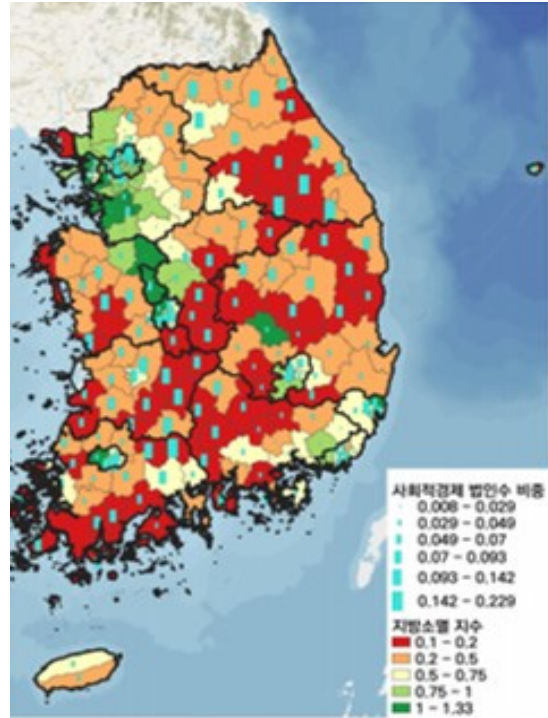
시·도	사회적기업 수(비중)	상위		하위*	
		시·군·구	사회적기업 수	시·군·구	사회적기업수
경기	540(18%)	전북 전주시	78	충북 증평군	1
서울	531(17%)	충북 청주시	65	충남 계룡시	1
부산	142(5%)	제주 제주시	62	전북 부안군	1
경남	153(5%)	경남 창원시	56	전남 함평군	1
인천	194(6%)	경기 성남시	53	전남 신안군	1
대구	115(4%)	강원 원주시	50	전남 강진군	1
경북	210(7%)	경기 수원시	49	경북 울릉군	1
충남	122(4%)	경기 화성시	47	경기 동두천시	1
광주	129(4%)	경기 고양시	45	경기 과천시	1
전북	180(6%)	서울 영등포구	45	경기 여주시	1
대전	84(3%)	광주 북구	39	부산 영도구	2
충북	129(4%)	인천 남동구	38	강원 고성군	2
전남	159(5%)	서울 은평구	37	경남 밀양시	2
강원	171(6%)	서울 마포구	35	경남 창녕군	2
울산	101(3%)	서울 성동구	35	경남 합천군	2
제주	80(3%)	경북 포항시	34	경북 고령군	2
세종	23(1%)	경기 안산시	32	경북 군위군	2
계	3,063(100%)	-	-	-	-

* 경북 봉화군, 경북 성주군, 전남 곡성군, 전남 구례군, 전남 영광군, 전북 무주군, 충남 태안군, 충북 괴산군 또한 사회적기업 수는 2개

<그림 01> 지역별 사회적기업 분포



<그림 02> 사회적경제 법인 수 비중



☑ <그림 02>는 지역별 전체 법인 수 대비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수의 비중을 지방소멸 지도에 표시, 해당 그림에서 표시된 막대가 사회적경제 법인의 비중을 표현한 것으로 **막대의 높이가 높을수록 비중이 큰 지역임을 의미*** **

* <그림 01>과 같이 사회적기업의 수만으로는 지도 내 막대의 높이 등이 확연히 눈에 띄지 않음에 따라 <그림 02>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(사회적기업+협동조합)의 수를 반영

** 지방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 지역 내 사회적기업,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 소멸 지수를 반영한 지도에 표시

- 대체로 소멸 위기가 가시화된 지역의 막대 높이가 높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22.9%, 가장 낮은 곳은 0.8%,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의 평균 5.5498%
-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순위를 살펴보면, 강원도 정선군(22.92%), 태백시(19.85%), 영월군(18.64%), 전라남도 구례군(17.18%), 강원도 인제군(14.23%) 순이며 강원도의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*
- * 서울시 은평구가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구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와 함께 서울혁신파크의 입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

<표 03> 사회적경제 법인 비중 순위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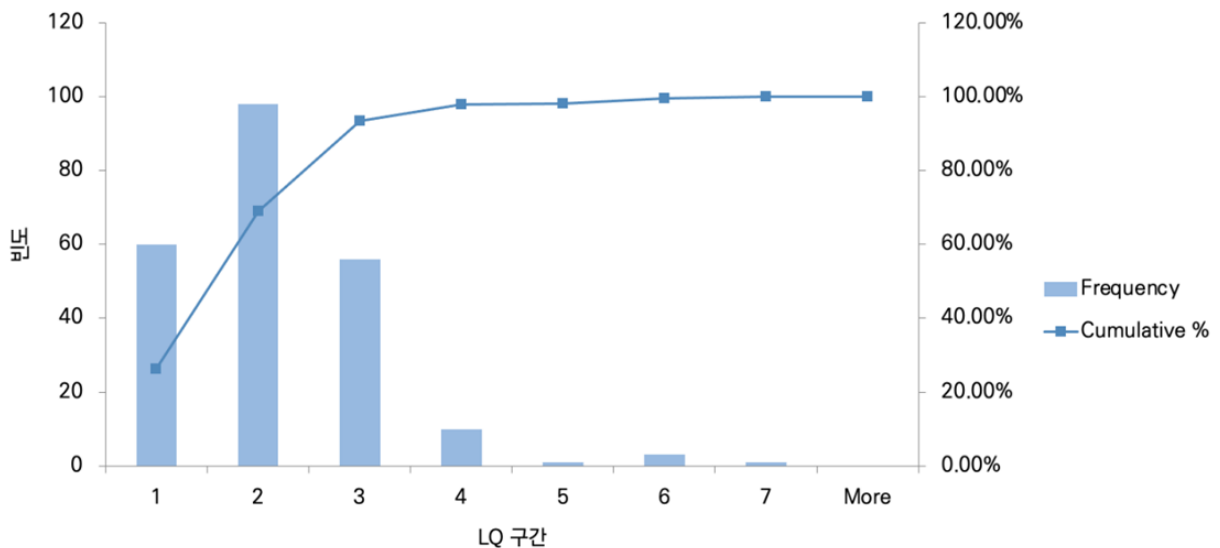
순위	지역	비중	순위	지역	비중
1순위	강원 정선군	22.9199%	6순위	서울 은평구	11.6378%
2순위	강원 태백시	19.8473%	7순위	충남 청양군	11.6142%
3순위	강원 영월군	18.6441%	8순위	전북 완주군	11.1655%
4순위	전남 구례군	17.1745%	9순위	전남 곡성군	11.0016%
5순위	강원 인제군	14.2329%	10순위	전북 진안군	10.9705%

☑ 지역별 사회적경제 법인 비중을 고정된 값인 국가 전체의 비중으로 나눈 값이 LQ임에 따라 법인 비중 순위와 LQ 순위는 동일, 다만 국가 전체의 비중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 법인 의존성이 큰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LQ 도출의 의미 존재

☑ 다음 <그림 03>, <표 04>는 사회적경제 법인 수 LQ를 구간별·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, **LQ가 1이 넘지 않는 지역은 모두 60개로 해당 지역은 사회적경제 법인에 관한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즉, 의존성이 크지 않은 지역으로 대부분 수도권**

- 1 이상 2 이하인 지역은 98개로 비교적 사회적경제 법인 특화가 이루어져 의존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
- 2 이상 3 이하인 지역은 56개 및 3 이상인 지역은 15개로 지역 내 법인 비중이 국가 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,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

<그림 03> 사회적경제 법인 LQ의 히스토그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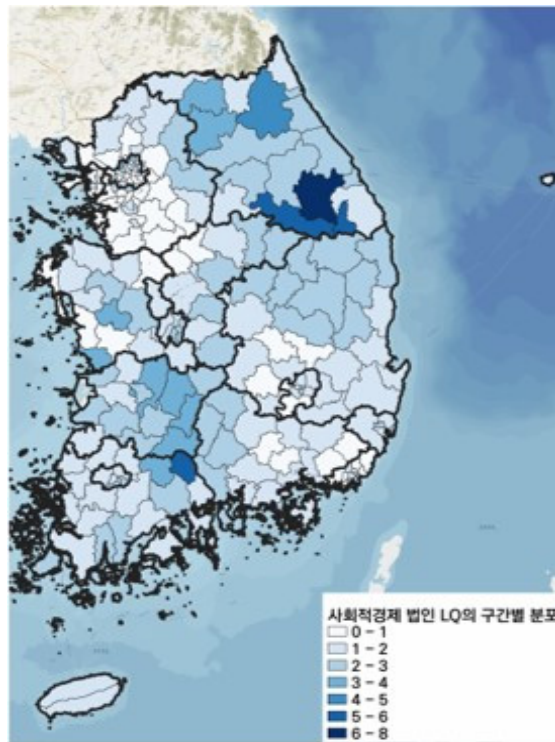
<표 04> 사회적경제 법인 LQ의 지역별 분포

(단위: 개)

LQ 구간	계	수도권	지방대도시	지방중소도시
1 미만	60개	48	12	-
1 이상 2 이하	98개	20	26	52
2 이상 3 이하	56개	6	3	47
3 이상	15개	1	-	14

☑ 다음 <그림 04>는 <그림 03> 히스토그램의 구간별 분포를 지도에 표시한 것,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강원도 전역, 경상북도의 북부권역, 전라북도·남도 등에 위치한 **소멸 위기 지역에서 법인 창업 시 사회적경제에 많이 의존**하고 있는 것을 시각적 확인

<그림 04> 사회적경제 법인 수 LQ



☑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, 지방 중소도시 또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의존 정도가 상당히 높음에 따라 **지역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육성 지원의 필요성이 증명**되었다고 판단

☑ 지역별 사회적기업 업종 현황 및 LQ는 다음 <표 05>와 같음. 분석 결과, **수도권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업종은 대체로 지식·정보·기술 집약적 업종**, 반면 **지방 중소도시**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업종은 상대적으로 **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특징** 다수

<표 05> 2021년 사회적기업의 지역별·업종별 비중 및 입지계수(대분류 수준)

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	비중				입지계수(LQ)		
	계	수도권	지방 대도시	지방 중소도시	수도권	지방 대도시	지방 중소도시
농업, 임업 및 어업(A)	3.04%	0.49%	0.52%	2.02%	0.39	0.56	2.38
광업(B)	0.03%	0.03%	0.00%	0.00%	2.42	0.00	0.00
제조업(C)	29.68%	12.14%	8.23%	9.30%	0.99	0.90	1.12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(D)	0.20%	0.16%	0.03%	0.00%	2.02	0.54	0.00
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(E)	2.29%	1.53%	0.49%	0.26%	1.63	0.70	0.41
건설(F)	5.00%	1.93%	1.31%	1.76%	0.93	0.85	1.26
도매 및 소매업(G)	10.06%	3.40%	3.23%	3.43%	0.82	1.05	1.22
운수업(H)	0.62%	0.46%	0.10%	0.07%	1.79	0.51	0.38
숙박 및 음식점업(I)	3.40%	1.14%	1.37%	0.88%	0.82	1.31	0.93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J)	3.85%	1.83%	1.37%	0.65%	1.15	1.16	0.61
금융 및 보험업(K)	0.03%	0.03%	0.00%	0.00%	2.42	0.00	0.00
부동산업 및 임대업(L)	0.36%	0.26%	0.07%	0.03%	1.76	0.59	0.32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M)	2.38%	1.31%	0.72%	0.36%	1.33	0.98	0.54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N)	8.55%	3.79%	2.74%	2.02%	1.07	1.04	0.84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O)	0.07%	0.00%	0.03%	0.03%	0.00	1.63	1.78
교육 서비스업(P)	11.49%	4.51%	4.51%	2.48%	0.95	1.28	0.77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Q)	7.64%	3.72%	2.06%	1.86%	1.18	0.88	0.87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R)	9.30%	3.92%	3.00%	2.38%	1.02	1.05	0.91

나. 시사점

- ☑ 기존 문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,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예산의 약 98%는 기술창업에 집중되어있으며 이러한 기술창업은 그 특성상 정보력과 아이디어, 창조적 인력이 몰려있는 대도시에 집중될 확률이 매우 높음
- ☑ 정부가 최근 발표한 **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~2027)**의 주요 전략으로 **'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'**을 위해 **지역맞춤형 창업 및 혁신 생태계 조성** 등을 추진함을 제시*

*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은 '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', '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', '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', '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', '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'로 구성
- ☑ 지방 중소도시와 소멸위기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비중 및 의존도를 확인했을 때, 이미 해당 지역들은 부족한 인프라와 생활서비스를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자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
- ☑ 따라서 **지방시대 실현**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맞춤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**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**
- ☑ 다만,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업종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특징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, **지역별 다양한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여 다양성을 높여가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**

3

성장단계별 창업지원방안

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다양한 정책 연계 창업지원을 통해
지속적·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 필요

가. 개요

- ☑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비즈니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반 창업기업과는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 필요
- ☑ 일반 창업기업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사회적기업은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, 이후 해결방안 모색단계에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의 접근이 중요
- ☑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면, ①창업준비단계(문제발굴 및 정의) ②예비창업단계(비즈니스 모델 수립), ③창업초기단계(1~3년 이내), ④창업도약단계(3~7년 내외), ⑤성장 및 확장기단계(7년 이상)으로 구분
- ☑ 특히,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고 고착화된 소멸위기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임팩트를 창출하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정책 연계 창업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육성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
- ☑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소위 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이라고 불리는 7년 미만 단계에 많은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이유도 해당 단계를 벗어나야 시장에서 독자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
- ☑ 사회적기업 역시 사업화 이후에는 일반 기업과 같은 성장단계를 거치기에 독자적 성장과 통한 지역에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정도의 안정적 지원은 필수
- ☑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있는 경우, 초기 창업지원 이후의 도약 및 성장은 생태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만,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 생태계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

나. 성장단계별 창업지원방안

① (창업준비단계) 문제발굴 및 정의

- 기존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은 예비창업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함께 문제발굴 및 정의를 병행
- 하지만 사회 문제가 중첩되고 고착화된 지방 중소도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자원, 정서 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핵심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
- 해당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 발견,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, 지역적 맥락 이해 등을 통해 **예비 창업가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는 것에 초점**
- 최근 **사회혁신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빙랩(Living Lab)**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가 함께 문제를 고민하며 향후 비즈니스의 방향을 다듬어 가는 것도 가능

* 사례

- 최근 행정학에서 시민들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경향이 부각 되면서 리빙랩 형태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중앙·지방정부에서 운영 중
- 리빙랩은 시민들의 일상공간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발견, 해결책을 설계하여 직접 문제해결까지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
- 리빙랩은 많은 경우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해법을 발견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나(예: 서울시 '드론으로 쪽방촌 지도만들기'),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기술보다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발굴 및 솔루션 도출 과정으로 진행 중
- 리빙랩을 통해 서울 동작구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거나, 경남 창원시에서 아파트 유휴공간에서 놀이공간을 조성(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)하는 등의 사례 창출

- 또한 행안부는 전국 시·도 지자체별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고 있고, 지역혁신 선도사업 및 '공감e가득' 사회문제해결사업 등을 통해 **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**
- 다만, 많은 경우 해결방안이 정책과제로 제안되거나 캠페인 및 주민 활동 영역으로 제안되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
- 따라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**다양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연계한 창업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**

㉔ (예비 창업단계) 비즈니스 모델 수립

- 준비단계에서 정의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단계
-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비즈니스 접근방안 모색
- 최근 스타트업 창업방식인 **린 스타트업** 또는 **애자일 방식** 도입으로 빠른 실행과 검증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필요
- 해당 단계에서는 예비 창업가가 창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천과 유사한 시도와 검증, 멘토링을 통한 보완 등을 지원할 필요
- 이를 위해 지방 중소도시에 거점 공간 등을 마련하여 **팝업 스토어 방식의 상시적 실행 및 검증이 진행될 수 있는 운영방안**을 모색

* 사례

- 창업진흥원의 혁신창업스쿨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초 창업교육을 통해 최소요건제품(MVP)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화 지원
- 중기부 등 범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'도전! K-스타트업' 프로그램은 창업 저변확대를 위해 리그 방식을 적용, 경쟁을 통해 비즈니스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유도
-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에 국한하여 점포경영체험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

- 중기부, 창업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비즈니스를 빠르게 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
-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소셜벤처 경영대회 등 유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, 사업화 이후 일반 창업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기업만의 창업지원 울타리는 오히려 한계 요인으로도 작용 가능
- 따라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**사회적기업 예비 창업단계에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** 예비 창업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**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**하는 것이 필요
-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기존의 창업지원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만의 강점을 확보
- 즉,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사회적경제 방식의 다양한 해결방안, 지역 내 다양한 취약계층 현황 및 연계 네트워크, 사회적 가치 측정과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, 기타 사회적경제분야만의 행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전문화하여 차별화 시도 필요

㉓ (창업 초기단계) 창업 후 1~3년 이내

-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
- 해당 단계에서 많은 창업가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은 인력과 자금지원 및 회계·법률 등의 기업 운영 지원
-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있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,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 많은 기업이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
- 따라서 지역 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**인력 풀 조성 및 취업 지원 시스템**을 구축하고 회계·법률 등의 운영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
-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*, 고향사랑기부제**를 활용하여 지역단위에서 초기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

* (지방소멸대응기금)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정과 함께 향후 10년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면서 이 기금을 활용한 지자체 차원의 로컬 창업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, 실제로 기금사업 첫해인 총 107곳의 인구감소 위기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508개 사업에서 창업 등을 키워드로 한 일자리 사업(121개)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(경향신문 2022)

** (고향사랑기부제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,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

* 사례

- 초기단계 창업지원은 대부분 사업화 자금 지원에 집중, 한편 인력수급은 민간플랫폼(원티드 등)이 주도하고 있는 추세
-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력지원제도도 창업가에 대한 지원이거나 고용노동부 정책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보조금 등이 다수
- 벤처기업에 한하여 중기부에서 벤처기업협회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개발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의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‘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’가 참고할만한 사례

- 지방 중소도시 청년 로컬기업들도 창업 초기단계에서 자금 외 가장 필요한 요소로 전문인력 확보와 판로개척의 중요성을 언급, **기존 정책의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각 지역별 특화된 정책 마련** 필요
-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²⁾, 인력 연계를 위해 정주 인프라를 우선 공급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**(가칭) 지역대학 연계형 로컬 인턴제** 등을 기획하여 지방 중소도시 창업기업의 인력난 해소 필요
- 또한 사업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
- 한편, 각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차별성과 실질적인 인구감소 예방효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접근방식 요구*
- * 2022년부터 배분된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행안부 평가단의 평가 결과, 전체 70개 군단위 지역은 4곳만이 A등급을 받았으며, 77%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C이하의 평가 점수를 획득³⁾
-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중·장기적으로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**단기적으로는 앵커 거점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등 지역단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**이 필요
- 특히, 마을공동체 주도 위케이션 성공사례로 꼽히는 제주 ‘질그랑이센터’와 같이⁴⁾, 지역의 거점 공간을 인력 및 창업 지원의 앵커 거점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 마련이 효과적

2) 국토연구원(2022). 지방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연구.

3) 나라살림연구소(2023). 나라살림이슈: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내역 및 자치단체별 투자계획 평가등급 현황.

④ (창업 도약단계) 창업 후 3~7년 이내

-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안착하고,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여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
- 해당 단계에서는 **성장지원 및 투자유치**를 위한 **경영컨설팅과 자금 지원**, 그리고 **지역 안착**을 위한 **공간 지원방안** 마련 필요
- 사회적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가 여전히 미약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, 더욱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하여 해당 단계의 **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중간지원조직의 노력**이 필요
- 그리고 성장한 기업이 지역 내에서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간 임대 및 매입 지원의 지원정책 또한 필요

* 사례

- 중기부는 지역단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'21년부터 지역엔젤투자허브를 조성·운영 중이며, 지역혁신벤처 펀드도 2026년까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준비 중
- 산자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의 지역 집적을 지원하며, 지방의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시행 중
- 민간영역에서는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가 2019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투자조합을 결성, 인천/경남 등에서도 각각 250억원, 2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를 조성하며 소셜벤처 육성을 지원
-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로 투자시장이 위축되긴 했으나, 여전히 로컬에 대한 임팩트 투자의 관심은 높은 상황

- 주로 소셜벤처에 국한되어있긴 하지만 이미 많은 민간과 공공자금이 현재 로컬과 임팩트를 중심으로 운용 중
-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집중되어있는 투자 흐름을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 흐름으로 전환
-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가진 문제 해결력과 지역사회 환원, 사회적가치와 취약계층의 고용 등을 강조하여 투자시장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이 관건
- 아울러 도약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 및 분야 사회적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피어컨설팅을 통해 지역-지역 간,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
⑤ (성장 및 확장단계) 창업 후 7년 이상

- 사회적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기업 주도의 생태계가 마련되는 단계
- 해당 단계의 기업들이 많아지고, 이러한 기업들을 주축으로 자생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 및 네트워크 지원 중요
- 네트워크 지원은 성장 단계의 사회적기업의 성공 경험을 확산하고 동종업종 및 가치사슬 내에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
- 또한 도약단계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 방안 모색 필요

4) 행정안전부(2023). 로컬브랜딩 사례집.

4 종합

지역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중요

- ☑ 수도권 중심의 기술 기반 창업 지원이 다수인 우리나라 현실과 최근 변화된 사회적기업의 정책환경 등을 고려할 때 **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**하기 위해서는 **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육성 지원 필요**

- ☑ 지역별 사회적기업 특화분석 결과, 지방 중소도시 또는 소멸위기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 비중 및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, 이는 지역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의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

- ☑ 따라서 현 정부의 **지방시대 실현**을 위해서는 **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한 차별화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**하는 것이 필요
 - **(창업준비단계)** 리빙랩 등 다양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창업화 지원
 - **(예비창업단계)**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**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연계**하되,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, 사회적가치 측정과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통해 **사회적기업만의 강점 강화**에 포커스를 맞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
 - **(창업초기단계)** 지역 내 **교육기관과의 연계**를 통한 **인력 지원**,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 **지역단위 정책**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초기 창업 지원
 - **(창업도약단계)** 사회적가치 측정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**민간투자 발굴**, 유사 업종·분야 **사회적경제 기업간 교류** 촉진 지원 등

참고문헌

01. 간기현·조상미(2023). 사회적기업은 어떠한 경로로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?: 사회적기업가 정신, 재정지원, 사회적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. 한국사회복지행정학, 25(1), 97-130.
02. 최유진(2018). "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실증 분석". 『지방정부연구』, 22(1), 227-246.
03. 국토연구원(2022). 지방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연구.
04. 나라살림연구소(2023). 나라살림이슈: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내역 및 자치단체별 투자계획 평가등급 현황.
05. 행정안전부(2023). 로컬브랜딩 사례집.
06.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2023).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.

• 정은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조사연구팀 과장
eunjung@ikosea.or.kr 031-697-7772